
지구적 관점에서 본 라틴아메리카의 인종주의

피터 웨이드

맨체스터대학 인류학과 교수

원제와 출처: Peter Wade, "Racismos latinoamericanos desde una perspectiva global",
Nueva Sociedad, No. 292, marzo-abril de 2021, pp. 25-41.

핵심어: 인종민주주의, 메스티사헤, 다문화주의, 인종주의, 인종, 라틴아메리카

서론

메스티사헤(mestizaje, 포르투갈어로는 메스티사쟁 mestiçagem)는 라틴아메리카의 인종적 형성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특징이다. 혼종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용어는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성적, 문화적 상호교류 과정을 지칭한다. 16세기 시작된 이 교류 과정은 유럽인도 아니고 아프리카인이거나

* 영어 원본은 John Solomos (ed.):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acisms*(Routledge, Londres, 2020)에 수록되었으며, 본고의 스페인어 번역본은 Rodrigo Sebastián이 번역했다.

인디오(아메리카 원주민을 일컫는 식민시대 스페인의 용어)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무엇인가를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개념인 ‘메스티소’라는 상당히 두터운 인구층이 형성되게 했다. 본래 메스티소는 다른 인종간의 성적 관계로 출생한 이를 의미했고, 따라서 특정 집단 범주를 지칭하기 보다는 일종의 계보나 ‘혈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내 이 용어는 문화적 혼성이라는 어감을 갖게 되었고, 메스티소들은 유럽계,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원주민계의 습성을 계승했다고 인식되게 되었다.

유럽인들이 원주민과 아프리카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삼았던 식민지의 맥락 때문에 서열화가 항상 이러한 교류를 규정했다. 다시 말해, 식민지 권력자들에게 아프리카계와 원주민계 ‘혈통’과 문화적 특징은 열등하다고 인식되었고, 흑인성/원주민성은 노예와, 그리고 원주민성은 정복당한 지위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양쪽 모두 야만성과 종교적 이단과 결부되었다. 메스티사헤는 젠더 위계에 따라 구성되기도 했는데, 한 편으로 유럽 식민주의자들 대부분이 남성으로서 원주민 여성 그리고 아프리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그랬고, 이념적 측면에서 본다면 19세기와 20세기 민족주의 담론에서 궁극적인 국가 건설 주체의 집단적 토대로 남성 지배권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

전 지구적 맥락에서 본다면 식민주의는 그 어디에서든 성적, 문화적 혼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유독 라틴아메리카에서 이 과정이 지역 전역의 인종적 특징을 결정짓게 되었고, 19세기 중반부터는 단일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광범위하게 이 인종적 특징이 국가적 자체적 표상으로 차용되기 시작했다. 지역의 엘리트들은 세계 다른 지역, 특히 대서양 연안의 세계와 자신들의 국가를 차별화하기 위해 이 특징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메스티사헤와의 관계를 통

1) Michael Banton: *Racial Theories*, Cambridge up, Cambridge, 1987.

해 인종주의를 이해하고, 이에 대항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혼종 과정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식민시대 대략 2백만 명 이하의 유럽인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30%였다. 노예 신세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은 약 6백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남자가 대부분이었다. 도착 후 수많은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이 서로 섞였고, 원주들이 여기에 합류했다. 원주민들은 전염병과 학대로 10분의 1 정도만 생존했고, 그 숫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1650년 무렵에는 약 6백만 명에 이르렀다고 추정된다.²⁾ 식민시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이질적 범주가 등장했고, 이들은 노예, 원주민, 백인을 연결해주는 중간자로 인식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메스티소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이 집단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예컨대 멕시코, 페루)에서 3분의 1(브라질) 심지어는 절반(콜롬비아)에 해당했다. 백인이 지배하고 노예와 원주민이 최하층을 구성하는 인종 위계에서 메스티소들은 직업, 부, 인종화된 계보와 외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계서화되었고, 복잡한 명명법들을 통해 이 계서화 과정을 체계화하려 했다. 역사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인종’³⁾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계서화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지만, 개인의 표현형을 통해 유추되곤 하는 ‘혈통’에 대한 관념들이

2) Maria Luiza Marcílio: 《The Population of Colonial Brazil》 en Leslie Bethell (ed.): *The Cambridge History of Latin America 2: Colonial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4; Linda Newson: 《The Demographic Collapse of Native Peoples of the Americas, 1492–1650》 en Warwick Bray (ed.): *The Meeting of Two Worlds: Europe and the Americas 1492–1650*, British Academy, Londres, 1993; Nicolás Sánchez-Albornoz: 《The Population of Colonial Spanish America》 en L. Bethell (ed.): ob. cit.

3) P. Wade: *Race and Ethnicity in Latin America*, Pluto, Londres, 2009, pp. 28–29.

매우 중요했다.⁴⁾

독립(대부분의 지역에서 1810년~30년에 성취됨)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1천 5백만 명 이상의 유럽계 이주민들이 지역에 유입되었고, 이들 중 1천 2백만 명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향했다. 이에 비해 중국, 일본, 중동 출신 이주민들의 숫자는 훨씬 작았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각국 정부와 엘리트들은 유럽계의 이주를 장려했고, 종종 은밀한 방법을 동원해 백인이 아닌 이주민들(중종 유대인을 포함)의 유입을 제한했다. 이 정책들은 백인을 높게 평가하는 식민주의 관념, 그리고 유럽인들이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월하며 따라서 국가적 인종 혼성에 있어 아프리카계와 원주민계가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상쇄해 주리라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우생학적 사고에 따른 것이었다.⁵⁾

식민시대에는 인종화된 인구 변동이 지역별로 상이한 유형으로 전개되었는데, 원주민 인구가 노동력의 중요한 원천이자 인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안데스와 메소아메리카 상당 지역)과 인구 감소로 인해 대부분이 아프리카인들과 메스티소 노동력으로 대체된 지역(브라질, 콜롬비아 저지대, 베네수엘라, 남아메리카 최남단 대부분 지역)이 대표적 사례이다. 독립 이후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백인 인구가 대규모 유입되면서 지역의 인종화된 인구 변동이 일부 재편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백인 주도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브라질의 경우에는 혼종성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흑인과 혼혈)과 백인 간

4) María Elena Martínez: *Genealogical Fictions: Limpieza de Sangre, Religion, and Gender in Colonial Mexico*,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2008; Ann Twinam: *Purchasing Whiteness: Pardos, Mulattos, and the Quest for Social Mobility in the Spanish Ind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2015.

5) Nancy P. Appelbaum, Anne S. Macpherson y Karin A. Roseblatt (eds.): *Race and Nation in Moder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2003; David Scott Fitz-Gerald y David Cook-Martín: *Culling the Masses: The Democratic Origins of Racist Immigration Policy in the America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4.

분리로 특징지어졌다.⁶⁾

혼혈 이데올로기

식민시대와 공화국 시대를 통틀어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무척 인종주의적이었다. 식민지 라틴아메리카는 향후 대서양 연안 세계를 지배하게 될 ‘인종’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기 위한 도가니가 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15세기 이베리아에서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의 순수성’(limpieza de sangre)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나 무어족(혈통이나 계보 상으로 볼 때)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분류해 일정 직업에서 배제시키고, 종교적 이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종교 재판관의 심문 절차에 세우기 위함이었다.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이 개념은 아프리카계와 원주민계 후손들에 적용되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혼혈 사회계층을 공식적(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과의 혼인을 규제하는 방식), 또는 비공식적(사회적 무리 특히 가족 구성원 형성에서 차별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⁷⁾ 공화국 시대, 국가 건설의 엘리트들은 흑인, 원주민, 어두운 피부색의 메스티소 인구가 국가의 진보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열등한’ 인종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 인종은 ‘피’와 ‘문명’이 결합된 생물문화적 총체로 이해되었다.⁸⁾

6) Paulina Alberto y Eduardo Elena (eds.): *Rethinking Race in Modern Argent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Nueva York, 2016; Andreas Hofbauer: *Uma história do branqueamento ou o negro em questão*, Editora UNESP, San Pablo, 2006; Thomas Skidmore: *Black into White: Race and Nationality in Brazilian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Nueva York, 1974.

7) M. E. Martínez: ob. cit.; P. Wade: *Race and Ethnicity in Latin America*, cit., pp. 67-71 y 88-94.

8) Nancy Leys Stepan: *«The Hour of Eugenics»: Race, Gender and Nation in Latin America*,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1991.

이런 관행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엘리트들은 메스티사헤와 민주주의에는 서로 내재적인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861년 콜롬비아의 작가이자 정치인인 호세 마리아 삼페르(José María Samper)는 “인종 혼혈이라는 놀라운 일”에 대해 서술했고, 그것이 “전적으로 민주적 속성을 지닌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며, 공화주의자들의 인종이자, 유럽, 아프리카, 콜롬비아를 동시에 대변하는 존재로서 신세계에 고유의 특성을 부여한다”⁹⁾라고 믿었다. 1920년 콜롬비아의 의사였던 호르헤 베하라노(Jorge Bejarano)는 강연장의 청중에게 이런 인종 다양성의 결과가 무엇인지 질문한 다음,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도래”를 의미할 것이며, 그 이유는 “인종의 혼합에서는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요소가 지배하게 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우세를 가져온다”¹⁰⁾는 사실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멕시코에서는 특히 1910년 혁명 이후로 혼혈과 민주주의 그리고 조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연계성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 작가이자 정치인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가 그 주창자로서, 그는 보편적 ‘우주적 인종’의 도래를 칭송했다. 바스콘셀로스는 라틴아메리카의 메스티소는 우주적 인종의 선도자로서, “자연권에 의해 모든 이들의 평등을, 그리고 백인, 흑인, 원주민의 사회적, 시민적 평등”¹¹⁾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1933년 멕시코의 외교부장관은 멕시코의 법이 반중국적이라는 중국의 항의에 대응하려 시도하면서, “멕시코의 대가족은 다양한 인종들의 교차에

9) J. M. Samper: *Ensayo sobre las revoluciones políticas y la condición social de las repúblicas colombianas (hispano-americanas). Con un apéndice sobre la orografía y la población de la Confederación Granadina*, Imprenta de E. Thunot y Cía., París, 1861, p. 299.

10) Miguel Jiménez López, Luis López de Mesa, Calixto Torres Umaña, Jorge Bejarano, Simón Araújo, Lucas Caballero y Rafael Escallón: *Los problemas de la raza en Colombia*, El Espectador, Bogotá, 1920, p. 193.

11) J. Vasconcelos: *La raza cósmica. Misión de la raza iberoamericana. Notas de viajes a la América del Sur*, Agencia Mundial de Librería, Madrid, 1925.

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부는 “인종이나 계급에 대한 그 어떤 편견”¹²⁾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브라질에서 ‘인종민주주의’라는 개념은 1930년대와 1940년대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의 민주주의 독재정부에서부터 공공연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초반, 작가인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처음 제시한 이 개념에 따라 브라질은 유럽계, 아프리카계, 원주민계 후손들의 조화로운 혼성체로 묘사되었다.¹³⁾ 프레이리는 “메스티사헤와 문화 간 상호침투(주로 유럽, 아메리카인디언, 아프리카 문화)는 ... (중략) ... 귀족 경제에서 형성된 계급과 인종간 적대성을 완화시켜온 경향이 있다”고 믿었다. 즉, “브라질에서만큼 다양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문화적 전통들이 그토록 광범위하게 만나고, 상호소통하며, 조화롭게 혼합되기까지 하는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¹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은연중으로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앞서 인용한 멕시코 외교부장관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호소했지만, 그의 주된 청중들은 아메리카 여타 지역과 유럽이었다. 당시 미국은 인종주의의 온상이자 폭력적인 인종 혐오, 철저한 분리와 인종 혼성에 대한 금기시로 특징되는 곳이라 인식되었고,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미국을 대비시키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다. 1920년대 무렵까지 미국과 북서부 유럽은 ‘강성’ 우생학의 본토로서 불임화(나치 독일의 후반기까지 지속)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연성’ 우생학은 대체로 사회적

12) D. Scott FitzGerald y D. Cook-Martín: ob. cit., p. 236.

13) Peter Burke y Maria Lúcia G. Pallares-Burke: Gilberto Freyre: *Social Theory in the Tropics*, Peter Lang, Oxford, 2008; G. Freyre: *Casa-grande & senzala. Formação da família brasileira sob o regime de economia patriarcal*, Maia & Schmidt, Rio de Janeiro, 1933.

14) G. Freyre: *The Masters and the Slaves: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Brazilian Civiliz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6, pp. xiv y 78.

위생 정책을 추진했다.¹⁵⁾ 라틴아메리카의 ‘인종민주주의’는 미국의 ‘인종 혐오’와의 관계를 통해 정립되었다. 쿠바의 독립영웅 호세 마르티(José Martí)는 그의 유명한 수필 『우리의 아메리카』(La Revista Ilustrada de Nueva York에 처음 게재됨)에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막강한 이웃”이 가할 수 있는 위협에 맞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전 세계 스페인어권 독자들에게 호소하며, 라틴아메리카에는 “인종이 없기 때문에 인종 간 혐오도 없다”¹⁶⁾고 말했다. 이런 대조법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했고, 그들 국가에 존재하는 인종주의를 은폐할 수 있었다.¹⁷⁾

재발견된 인종주의?

브라질은 인종민주주의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급기야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네스코의 관심을 사로잡게 된다. 1949년 유네스코는 인종 개념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당시 브라질인 아르투르 하모스(Arthur Ramos)를 수장으로 하는 유네스코 사회과학분과가 이 절차를 관할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 하모스는 우선 브라질 사회학자 루이스 지 아기아르 코스타 핀투(Luis de Aguiar Costa Pinto)와 멕시코 체질인류학자 후안 코마스(Juan Comas)를 섭외했다. 이 외에도 첫 위원회 모임 참석자들에는 미국 흑인 사회학

15) N.L. Stepan: ob. cit.; Alexandra Minna Stern: 《The Hour of Eugenics in Veracruz, Mexico: Radical Politics, Public Health, and Latin America's Only Sterilization Law》 en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1 No 3, 2011.

16) J. Martí: 《Nuestra América》 en La Revista Ilustrada de Nueva York, 10/1/1891.

17) Antonio Sérgio Guimarães: 《Racial Democracy》 en Jessé Souza y Valter Sinder (eds.): *Imagining Brazil*, Lexington Books, Lanham, 2007; Micol Seigel: *Uneven Encounters: Making Race and Nation in Brazil and the United State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2009.

자 프랭클린 프래지어(Franklin Frazier)와 프랑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포함되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브라질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브라질의 인종 정원에서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인종 화합과 관련해 세계 다른 지역들에게 일정한 교훈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브라질이 선택되었다.¹⁸⁾ 이어 유네스코는 브라질 도시와 농촌의 인종 관계를 주제로 일련의 연구 과제들을 개시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흑인과 흑인-혼혈-백인 관계였다. 그리고 그 성과로 『상파울루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 관계』, 『계급사회에서 흑인의 통합』 등의 저서들이 출판되었다.¹⁹⁾ 브라질 원주민에 대한 언급은 아주 드물었고,²⁰⁾ 인종주의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백인과 흑인이라는 맥락에 한정되었다.

유네스코의 연구들은 인종민주주의는 ‘신화’²¹⁾에 불과하며, 인종주의는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들은 인종주의 편견의 수많은 사례들과 이 편견들이 스스로의 자존감과 삶의 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가에 관한 흑인들의 수많은 일화들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 연구들에서 불평등과 편견을 양산하는 구조들의 총체로서 인종주의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예외적으로 플로레스탄 페르난지스(Florestan Fernandes)는 그의 ‘순응’ 체계에 대한 묘사에서 이에 근접한 설명을 제시하는데, 흑인과 혼혈은 노예제와 식민주의로 인해 가장 낮은 사회 계층으로 전락했고,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18) Marcos Chor Maio: 《Unesco and the Study of Race Relations in Brazil: Regional or National Issue?》 e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6 No 2, 2001.

19) Roger Bastide y Florestan Fernandes: *Relações raciais entre negros e brancos em São Paulo*, Anhembi, San Pablo, 1955; F. Fernandes: *A integração do negro na sociedade de classes*, Universidade de São Paulo, San Pablo, 1964.

20) Charles Wagley (ed.): *Race and Class in Rural Brazil*, UNESCO, Paris, 1952.

21) F. Fernandes: *A integração do negro na sociedade de classes*, cit.

인종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들보다 상층을 차지하는 보다 흰 피부색의 사람들과 맺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계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가부장제가 허용한 일부 소수 개인들의 신분 상승에 의해 위장되거나 은폐되었고, 수많은 흑인과 혼혈들은 인종주의의 존재를 부정했다. 백인들 역시 인종주의를 부정하거나 인종적 차이라는 문제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페르난지스 역시 브라질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부장제에서 ‘경쟁적인 사회질서’(예를 들어 자유로운 시장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흑인들이 계급 사회로 통합되게 함으로써 인종 평등 확대에 기여하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브라질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전반에서 발견되는 인종 형성의 핵심적인 특징, 즉 인종과 계급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역시 인종주의의 역할을 은폐한다. 이에 따르면 문제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계급과 관련되며, 흑인(그리고 원주민)은 현재의 인종주의가 아니라 노예제의 유산(아니면 과거의 억압과 방치)으로 인해 가난하다는 주장으로, 결국 명백한 인종 불평등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브라질(그리고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 상당수의 가난한 백인들(또는 밝은 피부색의 메스티소들)의 존재 역시 ‘인종이 아니라 계급’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페르난지스는 계급 역동성이 가부장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작동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흑인들이 중간 계급과 상류층으로 이동할 수 있으리라 주장하며 노예제와 방치의 유산을 등한시함으로써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유네스코 연구 이후 1970년대부터 진행된 브라질의 연구들은 통계와 설문 자료를 활용해 인종주의의 구조적 측면을 성찰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 조사들에서는 자기규정에 따른 ‘피부색’ 범주(주로 흑색, 갈색, 백색)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자료를 통해 비중상 혼혈(1970년대 전체의 약 40%를 차지)이 흑인(10% 미만)과 백인(약 55%)

의 중간에 위치하며, 통계적으로 볼 때 흑인과 혼혈은 백인에 비해 체계적으로 과소반영되기 때문에 흑인과 혼혈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료들에 의하면 인종주의는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졌다. 예를 들어, 흑인 대졸자들은 졸업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 기준 백인 대졸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말해, 소득수준에서 인종간 차이는 예컨대 직업, 교육, 이주 여부, 나이 등 비인종적 변수들의 총계로만은 온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인종주의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²²⁾

이와 유사한 자료들이 다른 나라들의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가령 콜롬비아²³⁾와 멕시코²⁴⁾ 그리고 지역 차원의 연구들, 특히 사회적 지위와 피부색(사기규정에 따른 정체성보다는)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들²⁵⁾을 들 수 있다. 경쟁적 사회 질서에 관한 페르난지스의 낙관론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노예제와 역사적 방치에서 유래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22) Carlos Hasenbalg: 《Race and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Brazil》 en Pierre-Michel Fontaine (ed.): *Race, Class and Power in Brazil*, Center for Afro-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5; Peggy A. Lovell: 《Race, Gender and Development in Brazil》 e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9 No 3, 1994; P.A. Lovell: 《Race, Gender, and Work in São Paulo, Brazil, 1960-2000》 e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41 No 3, 2006; Nelson do Valle Silva: 《Updating the Cost of Not Being White in Brazil》 en P.-M. Fontaine (ed.): ob. cit.; Edward E. Telles: *Race in Another America: The Significance of Skin Color in Braz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2004.

23) Olivier Barbary y Fernando Urrea (eds.): *Gente negra en Colombia, dinámicas sociopolíticas en Cali y el Pacífico*, CIDSE / Univalle / IRD / Colciencias, Cali-París, 2004; F. Urrea Giraldo y Carlos Viáfara López: *Pobreza y grupos étnicos en Colombia. Análisis de sus factores determinantes y lineamientos de políticas para su reducción*,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Bogotá, 2007.

24) René Flores y E. Telles: 《Social Stratification in Mexico: Disentangling Color, Ethnicity, and Class》 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7 No 3, 2012.

25) E. E. 텔레스와 라틴아메리카의 종족과 인종에 관한 2014년 프로젝트: *Pigmentocracies: Ethnicity, Race and Color i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2014; E. Telles, René D. Flores y F. Urrea Giraldo: 《Pigmentocracies: Educational Inequality, Skin Color and Census Ethnoracial Identification in Eight Latin American Countries》 en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 40, 2015.

더 나아가 이런 불이익은 인종화된 차이와 구조적 불이익 간의 상관성을 정당화하는 현제도 진행 중인 인종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종주의와 메스티사헤

페르난지스는 브라질의 순응체제를 규정하는 특징들과 사회에서 혼혈이 담당할 역할, 양자간 상관성에 무관심했다. 그에게 있어 흑인과 혼혈은 모두 같은 위치에 속했다. 1960년대와 70년대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브라질에 만연한 혼혈의 결과로 인종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모호성이 극대화된 사회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는데,²⁶⁾ 그 역시 유네스코 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 이는 “인종 차별이 본질적 문제로 인식되기 어렵다”²⁷⁾는 의미였다. 해리스의 주장은 과장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페르난지스가 간과한 무언가, 즉 인종 형성에 있어 메스티사헤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다. 브라질과 보다 광범위하게는 라틴아메리카 전반에서 메스티사헤는 중요한 방식으로 인종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인종주의는 메스티사헤를 통해 작동하지만, 좀처럼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을 통해서이다.²⁸⁾

한편으로 메스티사헤는 흑인과 원주민의 열등성(하층 계급, 후진성, 가난과 연계), 그리고 백인, 빈번하게는 밝은 피부색이나 그렇게 희지는 않은 메스티소

26) M. Harris: *Patterns of Race in the Americas*, Norton Library, Nueva York, 1964 y 《Referential Ambiguity in the Calculus of Brazilian Racial Terms》 en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No 27, 1970.

27) M. Harris: *Patterns of Race in the Americas*, cit., p. 63.

28) Alexandre Emboaba Da Costa: 《Confounding Anti-Racism: Mixture, Racial Democracy, and Post-Racial Politics in Brazil》 en *Critical Sociology* vol. 42 No 4-5, 2016; Mónica Moreno Figueroa y Emiko Saldivar: 《We Are Not Racists, We Are Mexicans: Privilege, Nationalism and Post-Race Ideology in Mexico》 en *Critical Sociology* vol. 42 No 4-5, 2016.

의 우월한 가치(부, 근대성과 연계)에 대한 관념들에 의해 완고하게 구조화된다. 이런 인종화된 위계가 사회질서 전반에 퍼지고,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를 구성한다.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흑인, 원주민, 어두운 피부색 사람들의 실태에 관한 자료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종 위계는 직업, 교육, 소득, 치안, 건강, 기대 수명에서의 불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²⁹⁾ 그리고 이 위계는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찍기의 토대가 된다.³⁰⁾ 인종화된 위계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흑인이나 원주민의 피부색, 머릿결, 얼굴 특징을 지닌 여성들, 또는 이에 결부된 부정적 평가에 민감한 여성들의 경우 더 그렇다.³¹⁾ 또한 인종 위계는 가족의 내밀한 영역까지 침투하여 낭만적 관계와 출산에 대한 결정을 좌우하기도 하며, 더 밝거나 어두운 피부색을 지닌 형제자매들 간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게 한다.³²⁾ 수많은 연구들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29) 직업, 소득, 교육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앞서 인용한 문헌들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이 외에 CEPAL (2017), Del Popolo (2017)를 참조할 수 있다. 치안과 관련해서는 Amnesty International (2015), Vargas (2018), Wade (2016), CODHES (2012)를 참고로 하길 바란다.

30) Michèle Lamont, Graziella Moraes Silva, Jessica Welburn, Joshua Guetzkow, Nissim Mizrachi, Hanna Herzog y Elisa Reis: *Getting Respect: Responding to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Brazil, and Isra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2016.

31) Alexander Edmonds: 《Triumphant Miscegenation: Reflections on Beauty and Race in Brazil》 en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vol. 28 No 1, 2007; Doreen Gordon: 《A Beleza Abre Portas: Beauty and the Racialised Body among Black Middle-Class Women in Salvador, Brazil》 en *Feminist Theory* vol. 14 No 2, 2013; Elizabeth Gackstetter Nichols: 《Decent Girls with Good Hair: Beauty, Morality and Race in Venezuela》 en *Feminist Theory* vol. 14 No 2, 2013; Jean Rahier (ed.): *Black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From Monocultural Mestizaje to Multiculturalism*, Palgrave Macmillan, Nueva York, 2012.

32) Elizabeth Hordge-Freeman: *The Color of Love: Racial Features, Stigma, and Socialization in Black Brazilian Families*,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2015; Mónica Moreno Figueroa: 《Linda Morenita: Skin Colour, Beauty and the Politics of Mestizaje in Mexico》 en Chris Horrocks (ed.): *Cultures of Colour: Visual, Material, Textual*, Berghahn Books, Oxford, 2012; Elizabeth F.S. Roberts: *God's Laboratory: Assisted Reproduction in the And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2012.

이러한 행태들을 목격하고 있다.³³⁾

다른 한 편으로 메스티사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 그 안에서 모두가 다소 “혼혈”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했다. 이런 환경에서 인종간 분리는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³⁴⁾ 인종 분류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형적인 ‘흑인’, ‘백인’, 또는 ‘원주민’이 어떻게 보이고, 사회구조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의견을 보이지만, ‘혼혈’이라는 중간지점과 관련해서는 훨씬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스티사헤는 인종적 차이는 삶의 실상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급과 젠더에 비해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는 환경을 만든다. 일부 학자들은 인종의 중요성에 경중이 달라지는 사회적 영역들을 구분해냄으로써 이 상황을 특징짓는다. 브라질 살바도르의 저소득 지역을 묘사하면서 산소네(Sansone)³⁵⁾는 주민들은 사회관계의 “연한” 영역과 “단단한” 영역을 구분해서 인식하는데, 전자의 경우 “피부색이 사회적 관계나 권력 관계의 방향성과 무관”(예를 들어 거리 모퉁이, 파티, 동네, 운동경기, 종교 등)한 반면, 후자의 경우 피부색이 중요(예를 들어 경찰과 대면, 일터, 결혼, 연애 등)해진다고 언급한다. 텔레스(Edward Telles)³⁶⁾도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사회관계의 공존으로 브라질을 특징짓는다. 친구, 가족, 이웃의 영역은 상호교류, 혼합,

33)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lejandro de la Fuente y George Reid Andrews (eds.): *Afro-Latin American Studies: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8; Tanya Kateri Hernández: *Racial Subordination in Latin America: The Role of the State, Customary Law, and the New Civil Rights Respo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3; P. Wade: *Race and Ethnicity*, cit.

34) O. Barbary y F. Urrea (eds.): ob, cit.; E. E. Telles: ob, cit.

35) L. Sansone: *Blackness without Ethnicity: Constructing Race in Brazil*,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2003, pp. 52–53.

36) E. E. Telles: *Race in Another America*, cit.

충분히 동등한 교환을 통한 수평적이거나 공생적 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위계와 불평등의 수직적 관계는 일터, 교육, 의료, 주거, 정치의 영역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산소네는 가족이 단단한 영역이라고 본 반면에, 텔레스는 수평성의 영역이라고 분류한다. 다시 말해, 이런 방식으로 상호작용의 영역들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서는 그 균형관계에 차이가 나더라도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위계와 화합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는 인종적 화합과 위계가 공존하는 내밀한 영역이다.³⁷⁾ 양 측면이 메스티사헤에 모두 내재하며, 양 측면 서로 간에도 그렇다.

종합하면, 메스티사헤는 다른 지역의 학자들이 “후기 인종성(posracialidad)”,³⁸⁾ “인종주의자 없는 인종주의”,³⁹⁾ 또는 인종주의가 “생매장된 ... 인종없는 인종주의”⁴⁰⁾의 새롭고 신자유주의적인 국면이라고 규정해왔던 것의 장기적 사례가 라틴아메리카에 생겨나게 했다. 오래 전부터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인종주의, 인종 위계와 인종 불평등이 이에 대한 부정, 보다 빈번하게는 축소, 폄하와 나란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이 경우 폄하는 특히 공공 정책과 관련해 두드러졌는데, ‘분열적인’ 차이에 집중함으로써 인종주의(백인과 메스티소의 특권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거꾸로 된 인종주의’로 불린다)의 소용돌이를 가져와 사회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 관심의 가치가 없다는 논리였다.

37) P. Wade: *Race and Ethnicity*, cit.

38) David Theo Goldberg: *Are We All Postracial Yet?*, John Wiley & Sons, Nueva York, 2015; Alana Lentin: 《Post-Race, Post Politics: The Paradoxical Rise of Culture after Multiculturalism》e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7 No 8, 2014.

39) Eduardo Bonilla-Silva: *Racism without Racists: Color-Blind Racism and the Persistence of Racial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Rowman & Littlefield, Lanham, 2003.

40) D.T. Goldberg: *The Threat of Race: Reflections on Racial Neoliberalism*, Wiley-Blackwell, Malden, 2008.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이런 축소와 편하는 신자유주의와 동시에 발생했다. 이에 반해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는 이들이 실제로는 자유주의에 보다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평등과 위계 사이에는 상호 구성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⁴¹⁾

인종주의, 다문화주의, 반인종주의

199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가의 다문화적, 다종족적 성격을 강조하는 법률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메스티사해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의 지배력이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행동주의(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저항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구적 탈식민화와 반-인종주의 운동에 고무된), 포섭, 거버넌스(민주주의를 차이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전 지구적 추세의 영향에 따라) 이들의 불편한 결합에 추동되어 이런 개혁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 소수집단들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인정해왔다. 개혁을 통해 소수집단들에게는 토지, 교육, 개발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권, 정치적 사법적 자율과 관련된 권리들이 허용되었다. 이 권리들은 국가별로 불균등했으며, 아프리카계 후손들에 비해 원주민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권리들이 주어졌다.⁴²⁾

41) P. Wade: 《Liberalism and its Contradictions: Democracy and Hierarchy in Mestizaje and Genomics in Latin America》 e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52 No 4, 2017.

42) Charles R. Hale: 《Neoliberal Multiculturalism: The Remaking of Cultural Rights and Racial Dominance in Central America》 en *POLAR: Political and Legal Anthropology Review* vol. 28 No 1, 2005; Tianna S. Paschel: *Becoming Black Political Subjects: Movements and Ethno-Racial Rights in Colombia and Braz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2016; Jean Rahier: 《Body Politics in Black and White: Señoras, Mujeres, Blanqueamiento and Miss Esmeraldas 1997-1998, Ecuador》 en *Women and Performance: A Journal of Feminist Theory* vol. 11 No 1, 1999; Rachel Sieder (ed.): *Multiculturalism*

이 문화적 인정은 '문화적' 소수자들의 상징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논란들을 촉발했고, 이런 점에서 인종주의와 인종화된 불평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논의는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에 집중되기 마련이었다. 또한 상명하달적인 포섭 정책으로 하위집단들을 분열시키고,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인종 불평등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한다고 비판받아왔던 다문화주의에 관한 전 지구적 논쟁에서 친숙하게 등장하는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⁴³⁾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사례에서는 임의적 요인들에 따라 유사한 마을 공동체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때로는 '흑인'으로, 그리고 때로는 '원주민' 공동체로 동원되기도 했다.⁴⁴⁾ 다른 사례에서는 과거 토지소유권 주장을 위해 협력했던 원주민과 흑인들이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서로 분리되어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⁴⁵⁾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인종화된 불평등에 일정한 변화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합법적으로 조성된 원주민 보호구역이 이제는 전체 국토의 약 30%에 해당하고, 1993년 법령에 근거해 2014년 기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 공동체들은 태평양 연안 지역 표면의 절반 이상에 대한

in Latin America: Indigenous Rights, Diversity and Democracy,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2002; Shannon Speed: 《Dangerous Discourses: Human Rights and Multiculturalism in Neoliberal Mexico》 en *POLAR: Political and Legal Anthropology Review* vol. 28 No 1, 2005.

- 43) Charles R. Hale: 《When I Hear the Word Culture...》 en *Cultural Studies* vol. 32 No 3, 2018; A. Lentin y Gavan Titley: *The Crises of Multiculturalism: Racism in a Neoliberal Age*, Zed Books, Londres, 2011; Emiko Saldívar: 《Uses and Abuses of Culture: Mestizaje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en *Cultural Studies* vol. 32 No 3, 2018.
- 44) Jan Hoffman French: *Legalizing Identities: Becoming Black or Indian in Brazil's Northeas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2009.
- 45) Bettina Ng'weno: *Turf Wars: Territory and Citizenship in the Contemporary Stat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2007.

법적 소유권을 획득했다.⁴⁶⁾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앞서 언급했던 인종화된 불평등의 고착적인 패턴들을 바꾸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실제로 토지등기 과정에 대한 반발은 태평양 일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과 원주민들이 대규모 폭력적인 실향 상태에 내몰리게 된 이유 중 하나일수도 있다. 여전히 이들 공동체 구성원들은 콜롬비아의 수많은 국내실향민들과 살인 희생자들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⁷⁾

2010년 무렵부터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부문에서도 인종주의에 대해 논의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흐름이 감지되어 왔는데, 과거 이들 중 다수는 이런 종류의 논의는 회피하고 문화적 차이에 집중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이 성향은 특히 원주민 활동가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문화적 차이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율성 요구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에 기대 원주민 토지와 생계를 위협하는 채굴주의 개발과 농산업 경제 사업들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원주민 활동가들은 인종주의 담론을 수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주민의 저항은 원주민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와 대중의 폭력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회의 체계적 특징으로서 인종주의에 대한 원주민 담론이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리추이(Marichuy)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멕시코 원주민 여성 지도자 마리아 데 헤수스 파트리시오(María de Jesús Patricia)의 최근 대선 출마 시도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았는데, 온라인 상의 반대 여론들은 무시하

46) Yamile Salinas Abdala: 《Los derechos territoriales de los grupos étnicos: ¿un compromiso social, una obligación constitucional o una tarea hecha a medias?》 en *Punto de Encuentro* No 67, 2014.

47) Ulrich Oslander: 《Violence in Development: The Logic of Forced Displacement on Colombia's Pacific Coast: Development in Practice》 en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7, No 6, 2007; P. Wade: 《Mestizaje, multiculturalism》, cit.

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반원주민적 인종차별을 담고 있었다.⁴⁸⁾

하지만 공적 논쟁의 주제로서 인종주의가 처음 등장할 때면 반흑인 인종주의가 주된 화두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논쟁이 브라질의 주도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브라질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문화적으로는 거의 식별되지 않는 흑인 인구에 있어 인종주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 핵심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1995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종주의를 문제로 인정하고, 2000년 초반부터는 고등교육기관 입학에서 인종에 기반을 둔 적극적 우대조치를 실시했으며, 이후에는 연방 고용 부문까지 정책을 확대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 조치는 미국과 다른 지역들의 경우와 유사한 ‘공정성’ 논쟁을 불러일으켰다.⁴⁹⁾ 콜롬비아 정부는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전국 캠페인(La Campaña Nacional contra el Racismo)’(2009)을 후원했고, 이후에는 유엔의 ‘세계 아프리카계 후손을 위한 10년(2015–2024)’ 운동의 일환으로 ‘인종주의에 맞서자(Ponga la Cara al Racismo)’ 캠페인(2016)을 후원했다. 여러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고,⁵⁰⁾ 에콰도르 군 간부가 흑인 모집병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인종혐오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처럼 상당한 주목을 받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⁵¹⁾

48) Anna Marta Marini: 《La normalidad racista del discurso público en México y el caso de Marichuy》 en *Iberoamérica Social* vol. 6 No 11, 2018; Luis Hernández Navarro: 《Marichuy y la exclusión política》 en *La Jornada*, 27/2/2018.

49) David Lehmann: *The Prism of Race: The Politics and Ideology of Affirmative Action in Brazil*,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Minnesota, 2018.

50) T. K. Hernández: ob. cit.

51) 《Caso Michael Arce: Primera sentencia por delito de odio en Ecuador》 en *Latin American Anti-Racism in a 《Post-Racial》 Age-LAPORA*, <www.lapora.sociology.cam.ac.uk/es/caso-michael-arce-primera-sentencia-por-delito-de-odio-en-ecuador>; Jean Muteba Rahier y Jhon Antón Sánchez: 《Anti-Discrimination Law in Two Legal Cases in Multicultural Ecuador: Afro-Ecuadoria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versus Bonil/El Universo, and Michael Arce and Liliana Mendez versus Lieutenant Fernando

이들 언론 캠페인과 법적 다툼은 상징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단기적 성격을 지니고, 구색 갖추기로 볼 측면도 있다. 하지만 브라질의 전례를 따라 그들은 적극적 우대 정책을 일부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 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의 외교관계장관은 외교 업무의 하위 직급에 인종적 소수자 채용 확대를 제도화하는 정책을 도입해왔다. 부분적으로는 1998년부터 지역 전반의 좌파로의 전환을 의미했던 라틴아메리카 ‘핑크 타이드’의 산물이기도 했던 이 정책들의 장기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2015년 여러 주요 우파 성향 지도자들의 당선을 계기로 반대 물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인종적 배상 정책에 보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는 위태로워 보인다. 예를 들어 2018년 브라질 대선에서 당선된 우파 성향 지도자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는 원주민 토지권이 농산업을 방해물이 된다고 주장했고, 흑인에 호의적인 적극적 우대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결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인종주의 가시화 등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화는 메스티사헤가 그 지배적 위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변화들은 메스티사헤 체제를 해체시키기 보다는 보완하고 있는 듯하다. 메스티사헤는 비록 동질화 기획이었음이 분명하지만 항상 흑인성과 원주민성에 종속적 위치를 부여했고, 백인성과 더불어 이 두 속성들 역시 메스티사헤가 중심적 개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Encalada/Escuela Superior Militar Eloy Alfaro (ESMIL) e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Ethnic Studies*
vol. 14 No 3, 2019.

주의에 적응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인종주의는 항상 메스티사헤에 부재하며 현존했고, 그곳에 있지만 동시에 그곳에 없었으며, 항상 작동하지만 계급 위계와 모호한 인종 구분 그리고 상대적 조화에 은폐되어 있었다. 따라서 갖 시작된 인종주의 가시화조차도 어느 정도는 이런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메스티사헤 체제에 근본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인종주의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보다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구색 갖추기 식의 인정과 인종주의를 마치스모,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이성애주의 등과 더불어 단지 또 다른 하나의 차별로서 상대화하는 경향(멕시코의 차별방지 국가 기구인 CONAPRED의 경우처럼)에 맞서 싸워야 이러한 인식이 쟁취될 수 있다.⁵²⁾ 인종주의의 교차적 측면(특히 혼성의 성적 측면에 대한 메스티사헤의 의존성에서 잘 드러난다)을 이해해야 하며, 정복과 노예화의 식민사의 영향에 따라 작동하는 인종주의의 특별한 작동논리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정원 옮김

52) A. Lentin: 《What Happens to Anti-Racism When We Are Post Race?》 en *Feminist Legal Studies* vol. 19 No 2, 2011.